

# 전주대 씨름부, 장사씨름대회에서 금1·은1·동3 획득

“좌절하지 않고 정확한 패인 분석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었다” 소감 밝혀

전주대 씨름부는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김천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15회 학산배 전국장사씨름대회에서 역사급 1위를 비롯한 경장급 2위 용장급 3위 등 다수의 선수들이 입상하며 우수한 결과를 냈다고 밝혔다.

김기환 선수(생활체육학과 4학년)는 준결승에서 김동훈 선수(대구대 4학년)를 배지기와 발다리 기술로 제압했고, 결승전에서는 송병락 선수(한림대 3학년)를 밀어치기와 배지기로 꺾으며 역사급을 석권했다.

경장급 김현우 선수는 준결승전에서 고주현 선수(경기대 3학년)를 되치기 기술로 제압하였지만, 결승전에서 한림대 선수에서 어렵게 패배하며 영광의 2위를 차지했다.

역사급 1위를 차지한 김기환 선수는 “올해에는 계속 2등만 해왔었다. 그때마다 좌절하지 않고 정확한 패인을 분석하고 더욱 악착같이 운동을 해서 이번에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다.”라고 소감을 말하며, “더 열심히 운동해서 남은 시즌도 우수한 성적으로 잘 마무리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1·2학년 신예 선수들의 활약이 돋보였다. 2학년 유혁 선수와 문화홍 선수는 각각 용장급, 용사급에서 3위를 차지했으며, 1학년 권기수 선수도 소장급에서 3위에 입상했다.



전주대 씨름부는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김천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15회 학산배 전국장사씨름대회에서 역사급 1위를 비롯한 경장급 2위 용장급 3위 등 다수의 선수들이 입상하며 우수한 결과를 냈다.

전주대 씨름부 임종길 감독은 “전 대회보다 기량을 향상하여 다수의 선수들이 입상했지만, 경협이 부족하여 제 기량을 발휘하지 못한 것 같아 아쉬웠다.”라며 “이번 하계 전지훈련에서 더욱 경험을 쌓아서 다음 대회에서 좋은 성적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 무주군, 제6회 무주농협 조합장기 게이트볼대회 개최

제6회 무주농협협동조합장기 게이트볼 대회가 지난 14일 무주군게이트볼경기장에서 개최됐다.

월로 조합원 간의 상호 친목을 도모하고 협동정신 고취, 건강증진과 사회참여 동기 부여를 위해 마련된 이날 대회에는 무주읍 6팀, 적상면 3팀, 안성면 3팀, 부남면 2팀 등 총 15개 팀 1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해 자웅을 겨뤘다.

곽동열 조합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농업인 복지와 교육지원 사업들을 발굴·추진하면서 조합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 남원시, 가정폭력 예방·응급처치법 직장교육 실시

남원경찰서(서장 임상준)는 지난 13일과 14일 이틀 동안 오전 경찰서 4층 민원실에서 전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전문 강사를 초빙해 가정폭력 예방 및 응급처치법에 대한 직장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가정폭력예방을 주제로 가정폭력 신고사건 처리 시 피해자 보호와 상담 등의 내용과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법의 주제로 사전 발생 시 경찰관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중점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직원들은 “최근 가정폭력 불발이 안전사고 등의 신고가 잦은 시기에 꼭 필요한 교육이었다며, 교육 내용을 토대로 신고사건 처리 시 매우 적절히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안심하세요... 입실 뿔, 공중화장실 안심 비상벨 점검

임실경찰서(서장 박주현)는 지난 13일 황여성아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관내 공중화장실 4개소 공설운동장, 보건의료원 등에 대해 비상벨, 안심비상벨 점검을 실시했다.

비상벨은 공중화장실에서 성폭력 등 위급상황 발생 시 비상벨을 누르면 불빛과 경고사이렌이 울려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안심 비상벨은 그와 동시에 경찰서 112 상황실에 자동 연결되어 인접 파출소에서 신속 출동하게 된다.

현재 임실에는 공중화장실 13개소에 비상벨 33개, 안심 비상벨 23개(강진시장 사선대 공원, 국사봉 화장실, 관촌 시장 보건의료원 등)가 설치돼 운영되고 있으며, 지자체·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안심 비상벨을 설치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 장수군, 계북면민의 날 행사 성료

장수군 계북면민의 날 행사가 15일 장영수 군수를 비롯 각급 기관단체장, 출향인, 지역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계북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올해로 60회를 맞는 계북면민의 날은 계북면 체육회와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하고 계북면 이장협의회에서 후원해 마련됐다.

이 날 행사는 계북면 풍물단 및 당저 서아림 학생이 가야금 연주로 막을 열었다. 함께한 주민들은 마라톤, 협동줄넘기, 토마토먹고 돌아오기 등 화합 체육행사 및 고리걸기, 부호, 율놀이, 제기차기 등 민속경기 등 주민 모두가 한마음 되는 흥겨운 하루를 보냈다.

양영수 계북면장은 “기록적인 폭염 속에도 면민의 날을 맞이하여 계북면의 발전과 주민회합의 기회가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살기 좋은 계북면을 만들기 위해 헌신을 다할 것”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 바르게살기운동 임실군지회 광복절 태극기 달기 캠페인 전개

바르게살기운동 임실군지회(회장 장주석)는 지난 14일 제73주년 광복절을 맞아 국민회복을 경축하고 나라의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해 태극기 달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태극기 달기 캠페인은 임실군 바르게살기운동 12개 읍면지회 회원 450여 명이 참여했으며, 군 12개 읍면 주요 소재지에 차량용 태극기 1,000개를 아파트 주차장, 버스터미널, 마을회관 등에 배부했다.

또한 임실군지회 임원 50명은 임실읍 버스터미널, 임실 시장을 돌며 주민들에게 태극기 게양방법을 안내하며 광복절에 태극기를 집집마다 게양하도록 당부했다.

장주석 본부장은 “제73주년 광복절을 맞아 추진하는 이번 캠페인이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계승하고,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태극기 달기운동을 통해 지역민들의 애국심을 고취하는데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고창병원 응급실, 고창경찰서간 비상벨 설치 협의

고창경찰서(서장 김성재)는 최근 주취자로부터 지구대·파출소 119응급구급차량 병원 응급실 내에서의 난동 및 폭행사건이 잇따르고 있어 이에 대한 신속한 출동 사후처리 방안으로 고창병원 응급실과 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 간 직접 비상벨을 설치하기로 협의했다.

직접 비상벨이란 직접적인 비상연락 시스템으로, 최근 주취자로부터 경찰 소강 병원에서 난동과 폭행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익산의 병원에서 당직의사가 못왔다는 이유만으로 50대 남성으로부터 주취과 발길질로 수차례 구타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급변 고창경찰서에는 이와 같은 병원응급실 난동사건을 예방하고 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고창병원의 협조로 설치하는 것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